

[성탄메시지]

말구유 속 큰 기쁨 '아기로 오신 예수'

하용조 목사 / 2000 / 페이지수: 4

성탄의 참된 의미는

인간을 심방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 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천년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 분은 외로웠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곳이 없어 말구유에 나셨고 양치는 목자들 외에는 환영할 사람도 없으셨습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빌립 보서 2장 6절에서 이를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분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최대 실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접근하지 않고 인간의 아들로, 인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형태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구유 심방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심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을 찾아온 그분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천대한 것입니다. 환영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를 대적하고 죽이고 만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의 허상은 신이 되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권력, 힘, 능력이 생기면 신이 되려는 욕망이

발동합니다. 이 신이 되려는 욕망은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인간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되려는 욕망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 내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사람이 사람을 노예 삼는 것입니다. 자기 종으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인간안에 있습니다. 땅을 많이 차지하려 하고 돈을 많이 가지려 하고 권력을 많이 가지려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신이 되려는 욕망은 우리들 삶 곳곳에도 나타납니다. 남편이 아내를 구박하고 때립니다. 파트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예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자기 종으로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죄입니다. 신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이 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된 사건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충격을 안 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묵상해 보면 이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실 수 있던 말입니까!

어구나 그 하나님이 나같은 죄인을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기절하지 않는 것이 충격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가치가 없는 나같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방법이 우리의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능력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화려한 궁궐에 오시지 않았습시다. 마굿간에 왔습시다.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택하신 방법은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대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했습니다. 채찍을 휘두르고 두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를 무참하게 죽여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행위였습니다.

2천년 전에 한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2천년이 지난 지금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성대한 대접을 여러분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얼마나 놀

라운 축복입니까!

성탄절은 2천년이 지난 오늘 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 여러분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최대의 대접입니다. 그 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참된 성탄입니다.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어디에?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크리스마스는 인류 최대의 명절이며 즐거운 휴가철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즐기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정작 자리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크리스마스! 모든 장식, 카드, 선물에서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불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파티를 하고자 할때도 예수님은 너무나 불편합니다. 예수라는 존재는 기쁜 존재가 아니라 불편한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의 축복을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를 빼놓고 보니 그들에게는 대용품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산타클로스입니다. 산타클로스는 성니콜라스 라는 2백70년경의 실존인물이라고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그를 성인으로 숭배 합니다. 그는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왔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박차버리고 그 자리에 산타클로스를 대용품으로 세워놓고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징글벨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꿔치기 한 주인공을 바꾸셔야 합니다.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표적 예수

10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밤에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알려 주며 찾아가라고 합니다. 예수의 탄생은 온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

입니까? 온인류에게 미칠 가장 복되고 기쁘고 좋은 소식!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병든자에게 기쁜 소식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사람에게 기쁜소식은 좋은 동반자와 친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귀신들린 자들에게 기쁜소식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죽은자에게 기쁜 소식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기쁜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은 표적입니다. 구원의 표적, 기적의 표적, 치유의 표적, 축복의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성탄을 아는 사람들,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성탄은 전도하는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가진 것은 십자가 뿐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고난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그 이름을 선포하고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2천년 전에는 외롭게 오셨지만
눈물과 감격으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우리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나누는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기름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출처 : 온 누 리 신 문